지역기관과 '교육기부' 업무협약

고성교육지원청, '꿈 키우며 나눔 실천하는 창의 인재' 육성 위해 … 6개 기관 참여

고성교육지원청(교육장 김경로)이 교육기부 활성화를 통해 꿈을 키우며 나눔을 실천하는 창의인재 육성을 위해 고성지역 유관기관들과 잇달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이번 교육기부 업무협약은 각 기관이 보유한 인적, 물적 자원을 각급 학교 교육활동에 적극 활용해 공교육의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에 따라 지난달 22일 고성청소년수련관, 고성군농업기술센터, 강원도세계잼버리수련장, 설악수련의집, DMZ박물관 등 5개 기관에 이어 지난 6일에는 고성군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고성지역 기관들과 교육기부 업무협약을 추진하고 있는 고성교육지원청이 지난 6일 고성군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교육기부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주5일 수업제와 관련된 토요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교육협력체제 구축, 청소년 토요 교육활동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교육기부 정책에 대한 업무협조, 학교 및 지역사회단체 행·재정적 지원, 학생들의 지역 문화시설 및 체험학습장 활용에 대한 지원 등이다. 최광호 기자

접경지역의 삶과 문화' 사진전

DMZ박물관 5월 6일까지, 인제군편

고성군 현내면 송현리 소재 강원도 DMZ박물관(관장 반종구)은 지난 6일부터 오는 5월 6일까지 2개월 간 다목적센터에서 '접경지역의 삶과 문화'라는 주제로 사진전을 개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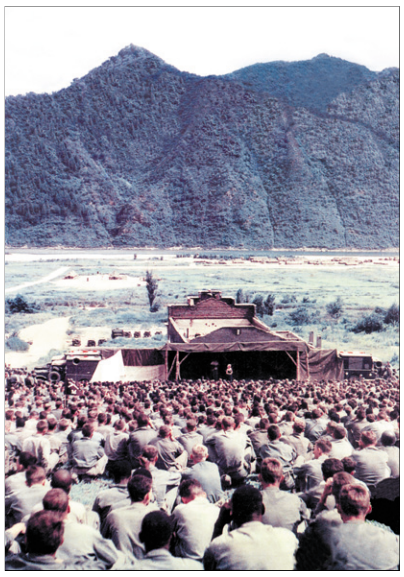
이번 전시회에서는 1950년대에서 1980년대에 이르기까지 인제지역의 옛 모습을 '인제의 풍경'과 '인제의 삶'으로 분류해 풍경과 생활상이 담긴 사진 70점을 전시한다.

'인제의 풍경'에서는 합강리 나루터 풍경과 6개 읍·면의 옛 산천과 시가지 모습 등을 감상할 수 있으며 '인제의 삶'에서는 전쟁의 그늘 속에 삶의 터전을 일구어 나가는 사람들의 생생한 삶의 현장을 들여다 볼 수 있다.

특히 1954년 인제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병사들을 위해 인제성당에서 검은 드레스를 입은 마릴린 먼로가 공연하는 모습과 1980년대 한국 영화계를 대표하던 여배우 장미희씨의 위문공연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만나보는 재미가 있다.

이번 전시회는 휴전선을 접하고 있는 15개 시군의 기록물을 수집하고 접경지역을 새롭게 조명하기 위한 DMZ박물관의 연례적인 기획전시 중 첫 번째 전시로, 인제산촌민속박물관과의 상호 전시자료 교류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최광호 기자



1954년 미국 배우 마릴린 먼로가 인제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병사들을 위해 공연하는 모습. DMZ박물관은 지난 6일부터 5월 6일까지 2개월간 '접경지역의 삶과 문화'라는 주제로 이 사진을 비롯한 70점의 사진을 전시한다.

2012년 전반기 학교장 회의

고성교육지원청은 지난 6일 오전 11시 3층 대회의실에서 고성지역 초·중·고 교장 19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2년 전반기 학교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강원도교육청의 중점추진사업을 지역 교육지원청의 실정에 맞게 수립해 학교장들에게 전달하고, 2011년 강원교육정책 만족도조사 결과를 토대로 2012년에는 교육주체들의 만족도를 높이기로 했다.

여성회관 12개 프로그램 운영

고성군 여성회관은 여성의 능력개발과 자신감 부여로 취업기회 확대 및 사회활동을 장려하고, 전문성을 키워 실생활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2012년 상반기 여성회관교육을 운영한다.

지난 5일부터 6월 29일까지 4개월 과정으로 실시하는 이번 여성회관교육은 총 170명의 수강생이 참여해 개인의 특기나 적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통해 배움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자아실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식조리기능사·제과제빵기능사·POP예쁜손글씨 등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6과목의 기술 및 취미교육 프로그램과 웰빙건강을 위한 생생요가교육 프로그램, 컴퓨터 2급자격증·컴퓨터첫걸음 등 4과목의 정보화교육 프로그램, 장애인을 위한 요가수업 등 총 12과목이다.

경조사·모임·구인·구직·개업
생활정보 무료로 안내해 드립니다
◆전화 : 681-1666~7 ◆팩스 : 681-1668
◆이메일 : goseongnews@hanmail.net
※매주 목요일 오후 5시까지 접수된 내용에 대해 다음주 월요일자 신문에 게재해 드립니다.

대진초 영어실력 향상 '눈에 띄네'

경동대 정기시험 우수한 성적… EBS TOSEL 자격증반 운영

주변에 영어학원의 부재로 체계적인 영어학습의 기회가 없었던 현내면에서 영어 자격증반 프로그램이 운영돼 학생들의 영어실력향상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대진초등학교(교장 김형섭) 11명의 EBS TOSEL 자격증반 학생들이 지난달 11일 경동대학교에서 치뤄진 정기시험에 응시한 결과 Junior(중학교 1~2학년 수준)에서 2, 3등급과 Basic(초등학교 4~6학년 수준)에서 1~4 등급의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이같은 결과를 낳을 수 있었던 원동력은 날마다 보는 5개의 영어단어 시험과 1주일에 2시간씩 실시하는 토셀 수업시간, 그리고 겨울방학 5주동안 지도교사(영어전담교사 김종녀)와 11명의 학생들이 날마다 2시간씩 공부하며 학업에 매진했기 때문이다.

대진초등학교에서는 현재 주변에 보습학원이 없는 지리적 환경적 여건을 고려해 한자자격증, 글쓰기자격증, TOSEL 자격증반 등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영어전담 김종녀 교사는 "국가영어 능력 평가시험을 대비한 TOSEL 자격증반을 통해 학생들의 영어실력이 향상되고 학부모님들의 학교 교육에 대한 의존도와 만족도가 높아졌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에게 영어에 대한 관심과 자신감을 높여줄 수 있도록 지도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원광연 기자